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오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WSJ: 연준, 어제 0.5% 금리 인상 후에도 추가 인상 가능성
- WSJ: 11월 소매 매출, 1년 만에 가장 크게 하락
- WSJ: 지난주 미 실업청구 건수, 2만 개 줄어
- Bloomberg: 11월 미 제조 생산, 지난 6월이래 처음으로 하락

[미국 금융]

- WSJ: 인플레이션 전망 해석, 파월과 시장이 서로 달라

[글로벌 경제]

- NYT: 미국, 국가보안 우려로 제재 조치 중국 기업들 늘려
- WSJ: 중국 지도자들, 경기 부양으로 방향 튼다
- CNN Business: 주요 중앙은행들, 금리 인상폭 연준처럼 완화

[물류]

- The Economist: 미국 최대 항만들, 이젠 반입 물량 적어 어려움
- CNBC: 북극 빙하 녹아 선박 운항 늘어나...기후변화의 명과 암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CNBC: 델타, 2023년 수익 두 배 예상...'강력한' 여행 수요 돌아온다
- CNN Business: Taco Bell, 맥도날드와 경쟁...감자튀김 메뉴 추가
- Bloomberg: 맥도날드, 전력 공급할 태양광 에너지 구매 계약
- The Economist: 테크 기업들의 해고, 상업용 부동산에 타격

[보고서]

- HBR 보고서: 공정한 임금을 주는 기업이 되기 위한 조건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WSJ: Fed Raises Rate by 0.5 Percentage Point, Signals More Increases Likely

연준, 어제 0.5% 금리 인상 후에도 추가 인상 가능성

- 연준은 어제 목요일 올해 마지막으로 금리 0.5%를 올리면서 내년 봄까지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물론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금리 인상이지만, 인상폭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 현재 금리 수준은 15년내 가장 높은 4.25% ~4.5%.
- 한편 파월 의장은 이날, “향후 미팅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라면서 “결정은 미국 경제 상황과 차용 비용 규모에 달렸다”고 말했다.

WSJ 기사

WSJ: November Retail Sales Fell in Biggest Drop in Nearly a Year 11월 소매 매출, 1년 만에 가장 크게 하락

- 11월 미 소매 매출이 1년만에 가장 크게 떨어졌다.
- 인플레이가 둔화되는 가운데 현재 연말 쇼핑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다.
- 연방 상무부의 오늘 목요일 발표에 따르면 11월 소매 업체, 온라인 판매, 식당 매출이 전월에 비해 0.6% 감소했다. 10월의 1.3% 강한 성장에 비해 반대 현상을 보인 것.
- 소비자들은 온라인이건 소매점 매출이건 공통적으로 전자 제품, 의류, 스포팅 상품 등 연말 쇼핑 품목에서 소비가 줄었다.
- 대신 식품과 같은 일상 필수품과 헬스 케어 소매품목, 외식 소비는 늘었다.

WSJ 기사

WSJ: Jobless Claims Fell by 20,000 Last Week 지난주 미 실업청구 건수, 2만 개 줄어

- 이같은 현상은 여전히 타이트한 노동시장에서 신규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지난 9월말 이래 최저치를 보인 것이다.
- 2만 건이 내려서 지난주에는 총 21만1천건이 실업 수당을 신규 청구했다 고 오늘 목요일 연방 노동부는 밝혔다.
- 올봄에 실업 수당 낮은 수치에서 올랐지만 여전히 고용주가 종업원들을 붙잡고 있는 상황이다.

WSJ 기사

Bloomberg: US Factory Production Declines for First Time Since June 11월 미 제조 생산, 지난 6월이래 처음으로 하락

- 제조 생산이 10월과 비교해 0.6% 낮아졌다. 10월에서 0.3% 조정치로 올랐으나 11월에는 하락한 것.
- 내구재와 비내구재 생산 모두 하락했는데 여기에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플라스틱 및 고무 제품이 포함된다.
- 자동차를 제외한 제조 생산은 여전히 6개월만에 가장 많이 감소했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WSJ: Jerome Powell's Grim Inflation Outlook Is at Odds With Markets**
인플레 전망 해석, 파월과 시장이 서로 달라

- 금융 시장은 에너지, 자동차 주택을 비롯해 소비자 물가가 둔화되고 있다. 따라서 금융 시장은 향후 인플레 전망에 대해 둔화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 그러나 연준은 그런 입장에 대해 “No”. 파월 의장과 관리들은 시장의 전망과 달리, 고통스럽고 장기적인 인플레이와의 싸움에 근거해 경제와 이자율 전망을 밝히고 있다.
- 한마디로 연준은 시장보다도 인플레가 훨씬 더 고착된 현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그 근거로 놀랄 정도로 유연하고 강한 노동 시장을 근거로 들었다.

WSJ 기사

[글로벌 경제]**NYT: U.S. Cracks Down on Chinese Companies for Security Concerns**
미국, 국가보안 우려로 제재 조치 중국 기업들 늘려

- 바이든 행정부는 첨단 반도체를 개발하려는 중국을 제한시키려는 조치를 확대했다. 미국의 기술에 접근하려는 36개 중국회사와 기관에 제한 조치를 내렸기 때문이다.
- 상무부가 발표한 이번 조치는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중국 정부를 단속하고, 기술 흐름을 선진국 등 글로벌 경쟁국으로 제한하는 것이 미국 외교 정책의 핵심이라는 것.
- 구체적으로 애플 iPhone 14 부품의 잠재적인 공급업체인 Yangtze Memory Technologies Corporation를 제재 조치 기업에 포함시켰다.
- 의회는 현재 이 회사와 중국의 반도체 회사인 Semiconductor Manufacturing International Corporation, ChangXin Memory Technologies 제품을 미국 정부가 구매 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중이다. 이들 회사들이 중국 국가 보안과 정보기관과 연계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NYT 기사

WSJ: China's Leaders Plot Pivot Back Toward Boosting Economy 중국 지도자들, 경기 부양으로 방향 튼다

- 중국 정부가 지난 10월 공산당 대회 이후 코로나 봉쇄를 완화, 부동산 부문 활성화, 기업인들의 신뢰 재구축 등을 추진하며 내년 GDP 성장률 목표를 5% 이상으로 잡고 있다. 또 최근 코로나 규제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은 테크와 교육 분야 정책을 재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 이 목표는 현재 중국을 둘러싼 무수한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는 경제 둔화 장기화가 공산당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지도층의 불안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스탠다드차타드(5.8% 성장 예상), 씨티은행(5.3% 성장 예상) 등 월가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의 올해 저성장과 코로나 봉쇄 완화에 대한 낙관론에 따라 내년 중국의 5% 이상 성장을 예상했다. 하지만 이외 다수 이코노미스트들은 지정학적 긴장 고조, 부동산 문제 여파 등을 우려해 기대치를 낮추었다.
- 한편 중국은 올해 GDP성장 목표인 5.5%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들은 3% 안팎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주 목요일 중국 정부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여전히 소매 판매, 공장 생산, 고정 자산 투자의 둔화가 예상보다 큰 상황.

WSJ 기사

CNN Business: No 'pivot' in inflation fight, but central bankers are easing up 주요 중앙은행들, 금리 인상폭 연준처럼 완화

- 유럽의 연방 은행들은 연준처럼 금리 인상 폭을 낮추는데 합류하고 있다. 수십년만의 고금리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 유럽중앙은행과 영국은행은 올해 마지막 회의를 통해 금리를 0.5% 인상 시켰다. 이들 중앙은행은 그전에는 0.75%씩 금리를 올렸다.
- 물론 이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와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가 금리 인상이 둔화하는 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을 언급하고 있다.
- 영국은 이미 침체로 향하고 있다. 유럽도 곧 그 뒤를 따를 수 있다.
- 유럽은행은 전망하기를 유럽 대륙 19개 회원국들이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에 경제가 위축될 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로 높은 에너지 가격, 계속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약한 글로벌 경기와 타이트해지는 금융 여건을 들었다.

CNN Business 기사

[물류]

The Economist: America's biggest ports face a new kind of paralysis 미국 최대 항만들, 이젠 반입 물량 적어 어려움

- 미국에 반입되는 전체 물량의 37%가 캘리포니아 두개 항만이 점유했는데, 반입 물량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 로스엔젤레스 항만은 11월 반입 물량이 전년 동월 대비 24% 떨어졌다는 것. 롱비치도 마찬가지.
- 따라서 해운 비용도 팬데믹 전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물론 해운업계에는 도전이다.
- 이처럼 공급망 문제가 풀리는 것은 인플레이션 물가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만 하역자, 트럭 운전자 등 관련 인력의 부족은 공급망에서 노동 비용이 여전히 높다는 것이다.
- 한편 글로벌 무역이 중국적으로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 서부 항만도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The Economist 기사

CNBC: The Arctic is getting warmer and stormier, and ship traffic is increasing as ice melts

북극 빙하 녹아 선박 운항 늘어나...기후변화의 명과 암

- 이번주 화요일 과학자들의 연례 평가에 따르면 2022년은 북극이 역사상 여섯 번째로 더웠던 해로, 북극의 온도는 지구의 다른 지역보다 4배 빠르게 따뜻해지고 있다고 밝혀졌다.
- 북극 지방은 지난 9월 그린란드에서 발생한 폭염으로 엄청난 양의 빙하가 녹는 등의 극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데, 강수량이 늘고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으며, 해수면 상승으로 금세기 말까지 약 2억명의 사람들이 이주해야 할 수도 있다.
- 한편 빙하가 녹으면서 북극의 해양 선박 교통량이 늘어나고 있다. Bering 해협과 Beaufort 해를 통해 태평양에서 이동하는 선박의 교통량 증가가 가장 눈에 띄었다. 이는 새로운 무역로의 개척으로 경제적 기회를 열지만, 생태계와 북극 공동체에 잠재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

CNBC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CNBC: Delta expects 2023 earnings to nearly double thanks to 'robust' travel demand

델타, 2023년 수익 두 배 예상...'강력한' 여행 수요 돌아온다

- 델타항공이 내년 조정 수익을 주당 6달러로 예상하면서 거의 두 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수익은 올해보다 15~2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해 약 4백 55억 달러를 벌어들일 것으로 보았다. 이에 델타가 사상 최대 손실을 기록했던 2020년으로부터의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 델타를 비롯한 항공사들은 경기 침체에 대한 다른 업계의 고충에도 불구하고 여행 수요 회복에 대해 낙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출장 수요가 2019년 수준의 약 80% 정도로 회복됐으며, 소규모 기업의 수요는 팬데믹 이전보다 더 강한 상황이다.
- 한편 미국의 항공료는 공급망, 노동력 문제로 올해 초의 최고치보다는 조금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2021년 수준을 훨씬 웃돌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 수요가 강해 항공사들이 계속해서 수익을 늘릴 수 있을 전망이다.

CNBC 기사

CNN Business: Taco Bell may add fries to its menu permanently to compete with McDonald's

Taco Bell, 맥도날드와 경쟁...감자튀김 메뉴 추가

- 이번주 화요일 Taco Bell CEO는 맥도날드와 같은 업체와 경쟁하기 위해 메뉴에 감자튀김을 영구적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소비자들이 점심시간에 감자튀김에 대한 수요가 강해서다.
- Taco Bell은 2018년 설립 이후 감자 튀김 대신 나초 프라이를 메뉴에 두었지만, 아침과 점심 시간 경쟁에서 맥도날드 대비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따라서 감자튀김을 메뉴에 추가해 맥도날드 등 경쟁 업체의 고객을 끌어들이고자 하는 것이다.
- 한편 Taco Bell은 최근 인기 있었던 이전 메뉴인 멕시코 피자를 다시 판매하는 전략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면서 3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6% 증가했다.

CNN Business 기사

Bloomberg: McDonald's Strikes Solar Deal to Power US Supply Chain

맥도날드, 전력 공급할 태양광 에너지 구매 계약

- 맥도날드가 미국 내 매장 물류 공급망의 모든 창고, 물류 센터 및 기타 요소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이탈리아의 전력회사 Enel과 1백90 메가와트의 태양광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 이는 맥도날드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6% 줄이고 2050년까지 제로 온실가스를 추진하는 과정의 일부이다.
- 한편 맥도날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젊은 소비자에게 어필하기 위해 환경 친화적인 식물성 메뉴를 제공하는 시도를 해오고 있으나,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Bloomberg 기사

The Economist: Tech lay-offs are the latest blow to office landlords 테크 기업들의 해고, 상업용 부동산에 타격

- 빅테크 기업들은 지난 2년 동안 인재를 끌어 모으기 위해 호화로운 사무실에 아낌없이 돈을 투자했다. 하지만 경제 불황이 다가오면서 근로자들을 대량 해고하며, 잉여 사무실 공간이 늘어나고 있다.
-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의 테크 기업들은 올해 15만명의 감원을 발표했으며, 2020년 초부터 미국 사무실 공간이 두 배 이상 증가해 142평방 피트가 되었다.
- 2010년 이래로 테크 기업들은 미국 임대 활동의 17.5%를 차지하며 다른 어떤 산업보다 많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러한 최근의 사무실 수요 감소는 더 넓은 경제 분야와 모든 종류의 사무실에 대한 수요에 타격을 주며 부동산 산업에 불안을 키우고 있다.
- 한편 현재 뉴욕, 샌프란시스코와 다른 도시들을 비롯한 미 전역의 사무실 5개 중 1개는 비어 있으며, 업계의 원격 근무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The Economist 기사

[보고서]

HBR 보고서: What It Takes to Be a Fair-Pay Workplace by Joanna Kim-Brunetti 공정한 임금을 주는 기업이 되기 위한 조건

- 점차 경쟁이 치열해지는 노동시장에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고용주는 직원들과 지역 사회에 더 나은 서비스를 주어야 한다.
- 직장에서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이 중요한 요소로 꼽히지만, 1순위는 급여 형평성이다.
- 급여 형평성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성별 또는 인종, 기타 계층 요소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

- 적정하고 공정한 급여는 직원 만족의 가장 큰 원동력이며, 인재 확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만들 무기가 된다. 뿐만 아니라 혁신을 촉진하고, 직원 참여를 유도하며, 이직률을 최소화하고, 브랜드 평판을 유지하고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한다.
- 채용 사이트 Indeed의 연구에 따르면 81%의 근로자가 자신이 정당한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더 생산적으로 일에 참여했다. 또 75%의 사람들이 회사가 급여 투명성이 좋을 경우 일자리에 지원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밝혔다.
- 보고서는 고용주를 위해 현재의 급여 관행, 진행 상황 및 장기 목표를 평가할 수 있는 급여 형평성 평가 3단계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급여 형평성 성숙도 모델(Pay-Equity Maturity Model)

Foundational – 기초 단계

- 이 단계의 고용주는 급여 형평성을 초보적으로 이해한다. DEI 정책이나 대표성(representation)이 부족하고, 구체적인 급여 형평성이나 DEI 측정 시스템이 없으며, 직원 참여도가 낮다.
- 성별 및 인종/민족 간 임금 격차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자원이 없거나,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
- 최근 임금차별, 성희롱, 보복 등과 관련 1억 달러 규모의 성차별 소송을 진행한 Riot Games, 비슷한 문제를 겪은 Blizzard가 이 단계에 해당한다.
- 개선 방법: 직원 기본급 측정 시스템 구축, 급여 형평성 목표 정의, 지속적 모니터링 및 이해 관계자에게 진행 상황 전달

Programmatic – 발전 단계

- 이 단계의 고용주는 공정한 임금에 대한 계획을 진행 중이다. 측정 시스템이 있고, 작업 구조와 임금 철학이 문서화되어 있다. 급여 형평법을 준수하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진행 과정에 대해 소통한다.
- 하지만 완전한 안전지대에 있는 것은 아니다. 회사 내의 데이터 측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 LinkedIn은 적극적인 pay-equity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남성 직원보다 급여가 적은 것으로 밝혀진 7백명의 여성 직원에게 약 2백만 달러의 밀린 급여를 지급했다. 연방 노동부의 분석과 내부 분석 결과가 대조적이었던 것이다.
- 개선 방법: 급여 형평성 데이터 검증, 불평등 원인 파악 및 제거, DEI 글로벌 표준 달성과 연계, 공정한 급여에 대한 제삼자의 인증 획득

Strategic – 성숙 단계

- 이 단계의 고용주는 공정한 임금 목표와 이에 대한 계획을 그들의 사업 철학에 적용했으며,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 정기적으로 급여 형평성 감사를 수행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원인을 찾아 개선 조치를 취한다. 직원의 피드백을 요청하고 급여 형평성 이니셔티브 추진에 사용한다.
- 정기적인 ESG 및 CSR 보고를 실시하고 성별 간 임금 격차가 없음을 공개적으로 발표했으며 2019년 여성이 이사회 55%를 차지한다고 보고한 GM, 작년 EDGE 인증을 받아 제삼자의 감사에 의해 급여 형평성과 DEI 성과를 검증받은 L'Oreal이 이 단계에 속한다.

결론 - Pay Equity Is Ongoing

- 고용주들은 급여 형평성 성숙도 모델에서 자신의 기업이 어떤 위치에 있고 다음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해야 한다.
-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 시장에서 인재를 얻기 위해서는 공정한 임금을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What gets measured, gets managed."

(백승아 번역)

HBR 보고서 원문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긴축 기조' 고수한 Fed ... 내년 최종금리 전망 年 5.1%로 높였다

매파본색 파월 "내년 금리인하 없다"

파월 "서비스 부문 중심 물가상승률 예상보다 높아" 성장률·실업률도 악화 전망

미국 중앙은행(Fed)이 14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다. 4회 연속 0.75%포인트 올리다가 7개월 만에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했다. 하지만 내년 최종 금리 수준은 연 4.6%에서 연 5.1%로 상향 조정했다. 내년에 금리를 내리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Fed는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연 3.75~4.0%인 기준금리를 연 4.25~4.5%로 올렸다. 이로써 한국(연 3.25%)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1.0~1.25%포인트로 벌어졌다. 2000년 10월(1.5%포인트) 후 가장 큰 금리 역전 폭이다.

Fed는 기준금리 인상 뒤 공개한 점도표(금리 전망을 점으로 표시한 도표)를 통해 내년 기준금리 중간값이 9월(연 4.6%)보다 0.5%포인트 높은 연 5.1%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이후 기준금리를 추가로 0.75%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커졌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은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가 될 때까지 긴축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현재 경제 전망으로는 내년 중 금리 인하는 없다"고 강조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